

로컬리티의 인문학*

- 지역과 인문학의 만남에 대한 비판적 접근

문재원** | 부산대

< 목 차 >

1. 들어가기
2. 지역학의 비판적 검토
 - 2-1. 지역연구의 출발과 지역의 타자화
 - 2-2. 지역학의 문화론적 전회
3.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지형
 - 3-1. 탈근대담론을 경유한 로컬리티 연구
 - 3-2. 공간 경계의 재해석과 다중스케일
 - 3-3. 인문정신의 사회화와 로컬리티 연구
4. 나가며

국문초록

로컬리티(연구)와 인문학의 교섭과정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무엇보다 기존의 지역학을 비판적으로 수렴하고 중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이 논문은 제1회 익산학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합하여 메타이론으로 구성하고, 둘째, 기존 연구와 차이를 만들어 내면서 독자적 연구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리티인문학 연구단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로컬리티의 개념이 어떻게 인문학적인 전치작업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점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역학의 흐름을 고찰한다. 그리고 로컬리티인문학의 연구지형을 방법론, 대상, 지향점에 맞추어 1)탈근대담론을 경유한 로컬리티의 개념적 전유 2)공간경계의 재해석과 다중스케일 3)인문정신의 사회화와 로컬리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지형은 우선, 탈근대의 흐름 안에서 로컬리티담론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가, 로컬리티 개념을 인문학에서 어떻게 전유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대적 공간의 폭력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로컬리티에 대한 상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주제어 : 로컬리티의 인문학, 지역학, 문화적 전회, 다중스케일, 탈중심성, 인문정신의 사회화

1. 들어가기

오늘날 로컬리티(locality)는 지구화과정 속에서 더욱 부상하면서¹⁾ 기존

- 1) 로컬리티의 부상을 촉진한 사회정치문화적 요인을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정치적으로는 산업사회 시기의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관계의 해체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계적 민감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으며 3)사회문화적으로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패턴을 강요하고 있으며 4)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세계사회의 새로운 단위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재구성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로컬리티(locality)이다.(김용철·안영진,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2014, 421쪽)

의 담론적 배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담론적 배치로 재편되어 가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이 경로에는 엄청난 고착과 종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또한 고착화된 배치의 선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로컬리티의 이중성을 이야기한다.²⁾ 이러한 흐름 안에서 로컬리티 연구가 기존의 인류학, 지리학 등의 사회과 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영역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래의 인용은 왜 인문학 영역에서 로컬리티 연구를 주목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로컬리티의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놓여있는 곳을 로컬로 포착했다. 다양한 질감의 흔적과 주름들이 엉켜 시간과 장소들을 의미화시켜 나가는 로컬의 주체로서 인간을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와 권리가 로컬의 역동적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근원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인문학적 담론으로 로컬리티를 구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의 구체적 당사자성에서 출발한 로컬의 개별적 사실들의 근원적 본질과 내재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구체와 추상, 개별과 보편을 아우르는 로컬리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고 기존 인문학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탐색한다.³⁾

인용문을 보면,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가치와 권리’가 ‘역동적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근원’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기존의 분과학문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현행적인 사회-공간으로서 로컬리티를 뛰어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인

2) 이에 대해 아리프 딜릭은, ‘해방과 조작’이 가능한 이중성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A. Dirlík, "The Global in the Local", R. Wilson & W. Dissanayake(eds.), *Global/Local: Culture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rham: Duke Uni. press, 1996, pp.31-42 참조) 해방의 측면은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근대국민국가의 반성기제와 맞물려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의 가능성이 고, 조작의 측면은 세계화의 흐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본 흐름의 논리에 흡수당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조작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지역이 세계의 새로운 단위로 등장하였지만, 세계화가 또 다른 규범과 종속적 관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며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5쪽

성찰'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아탑 인문학의 경계에 대한 균열작업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생성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삶의 가치와 인간다움의 의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일이 인문학적 수행영역이다.⁴⁾ 현행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의 역학을 주목하면서 로컬리티의 문제를 성찰할 때, 로컬리티인문학의 자리는 마련된다.

로컬리티(연구)와 인문학의 교섭과정을 통한 의미의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⁵⁾ 단순히 기존의 가치와 대립하는 내용이나 적대적 전통들 사이의 분쟁을 단순히 재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의 지반을 옮기거나 진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개념들을 반박하고 대체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론적 변형을 요구받은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컬, 로컬리티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개념을 개발하여야 하며, 나아가 로컬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 로컬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하는 보편적인 논리 틀을 도출해야 한다.

인문학 영역에서 로컬리티라는 개념이 활성화된 데에는 부산대학교 로컬리티의인문학 연구단의 연구성과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로컬리티의인문학'이라는 아젠다로 2007년부터 인문학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설정을 했다. 1) 왜 로컬리티에 주목했는가 2)로컬리티 연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3)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4)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5)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가. 특히 궁극적으로 로컬리티학(localityology) 수립을 목표로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종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논의진행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연구대상의 범주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러한 고민은 기존의 로컬리티 연구와의 차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의 '로컬리티(인문)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⁶⁾

4) 박영균, 「로컬리티와 인문학의 만남」, 『대동철학』 53, 2010, 372쪽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총서를 참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혜안, 2010;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로컬의 문화지형』, 혜안, 2010.

본 논문에서는 로컬리티인문학연구단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로컬리티의 개념이 어떻게 인문학적인 전치작업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공간의 경계에 대한 재사유를 토대로 하여, 로컬리티담론을 인문학적 영역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점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역학의 흐름을 고찰한다. 그리고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지형을 방법론적 사유, 대상, 지향점에 맞추어 1)탈근대담론을 경유한 로컬리티의 개념적 전유 2)공간경계의 재해석과 다중스케일 3)인문정신의 사회화와 로컬리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지형은 우선, 탈근대의 흐름 안에서 로컬리티담론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가, 로컬리티 개념을 인문학에서 어떻게 전유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대적 시공간의 폭력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로컬에 대한 상상을 제공할수 있다, 나아가 인문학이 현장으로 환원되는 소통과 환류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학의 사회화 방안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역학의 비판적 검토

2.1 지역연구의 출발과 지역의 타자화

지역학(Regional Studies)은 연구주체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학적 접근이다. 지역학에 대한 인식은 도시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학은 대체로 오늘날 그 지역을 만들어 내고 변화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보다 나은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러한 지역학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구명작업이다.⁷⁾

지역학의 출발이 되는 지역연구(area studies)는 타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
-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년도 인문학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 자료집 참조
 7) 김대래, 「부산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부산학총서』 1, 신라대 부산학연구센터, 2003, 67-69쪽

그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적 인식방법론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연구라는 말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미국 학계이다. 1943년 컬럼비아 대학교가 ‘지역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또한 같은 해인 1943년에 미국 사회과학연구회회가 「사회과학에 있어서 세계지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40년대 전반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지역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현실적 요청에 기인한 것이다.⁸⁾ 전후 지역학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시-권력 체계는 미국이 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러기에 ‘아직 완수하지 못한’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⁹⁾ 전후 냉전의 세계화라는 강력한 세계분할구도의 자장 속에서 미국 중심의 지역학은 새로운 세계인식의 지평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배, 관리, 대상화의 인식틀과 전략기획을 제공하는 정책과학, 특히 냉전적 세계구도를 유지, 온존시키며 미국의 세계지배를 관철하는 이데올로기와 지배정책을 생산하는 자기존재양식을 강화하게 된다.¹⁰⁾

주지하다시피 여기에서 지역 연구의 출발은 세계 지역(world regions) 단위를 뜻하지만,¹¹⁾ 더욱 본질적인 것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시선의 문제이다. 야노 토루가 세계의 지역단위 설정에 발견이 아닌 발명이라는 모티브가 사용된다고 지적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러한 지역연구를 ‘추악한 신조어(urly Neologism)’라고 명명하며 지역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의 시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¹²⁾ 다시말해, 전후 패권적 지역학은 오리엔탈리즘과 냉전이데올로기를 자기본질로 세계에 대한 인식패턴을 구축해가는 것을 정확하게 목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문의 아메리카나

8)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 19-22쪽

9)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제국주의』, 한울, 2005, 54쪽

10) 백원담, 「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정치학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55, 2010, 135쪽

11) 전후 ‘지역학’, 몇 개 단위로 분할된 연구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구성하는 ‘국민국가’라는 범주는 그것이 냉전시기 미국 전략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존재론적 지위가 의심되지 않는 자명한 범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사회와 역사』 104, 2014, 320쪽)

12)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pp.4-15

제이션과 같은 식민성과 냉전성을 내재한 우리 학문의 역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학문의 주체화전략을 논의하는 일을 지역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의미 있다.¹³⁾ 그래서 지역연구는 발화 위치의 이동을 주장하고 지역의 사례에 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하여 관행적 시각에서 볼 수 없었던 균열과 간극을 찾아내려는 작업으로서의 지역학의 프레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는다.

2-2. 지역학의 문화론적 전회

한편, 198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로컬리티 연구(locality study)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였다. 로컬리티연구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장소의 역할과 공간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리티 연구는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불명료성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론적 위상(일반이론과 사례연구 간의 대립) 등과 관련하여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다. 논자는 로컬리티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로컬리티 개념의 모호성 2)지역 자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적 편협성 3)로컬리티를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점, 다시말해 로컬리티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변화의 구체성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학문적으로 요구되었다. 서울학, 강원학, 제주학, 인천학, 부산학, 호남학, 원주학 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되었다. 논자는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첫째,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탈중심화와 다극화의 경향으로 지역 단위의 개체성에 주목 둘째,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

13) 백원담, 앞의 논문, 136쪽

14) 구동희,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국토지리학회지』 44-4, 2010, 510쪽

15) 김용철·안영진, 앞의 논문, 423-424쪽

의 필요성¹⁶⁾으로 지적한다. 이후 각 지방학 연구소에서 발신되는 주제와 방향을 보면, ‘지방화시대와 지방문화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지방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지역학의 근거에는 인식론적 모순이 배태되어 있다. 중심부/주변부의 이분법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역학의 출발 근거로 삼으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행정적 영역을 주어진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면서 연구대상이나 분석단위를 설정하는 방법론적 영역주의(methodological territorialism)에 쉽사리 포섭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⁸⁾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이 지역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러한 연구에서 드러난 지역적 차이들은 여전히 중심/주변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지역을 자율적인 공간단위가 아닌 중앙에 의해 주변으로 규정지어지는 종속적인 공간으로 타자화하면서 구축했던 근대민족국가의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나아가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중심 혹은 중앙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¹⁹⁾ 전지구적 맥락을 담보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나 당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할 것을 요청받는다. 즉, “지방을 지방주의가 아니라 전국적 또는 세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즉 전지구적 시야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침투적 시각을 견지”²⁰⁾ 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 역시 전제했듯이, 글로벌화의 유연성에 복무하는 설명기제 될 수 있는 위험은 도처에 놓여 있다.

한편, ‘지역의 눈’(시선)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역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제기되면서 ‘문화연구’가 부상했다. 역사

16) 김대래, 앞의 논문, 68쪽

17) 유승희, 「서울학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한계」, 『도시인문학연구』 2-2, 2010; 오영교, 「원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릉학보』 창간호, 2004

18)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 2012, 41쪽

19) 지역 현실 변화의 역동성 및 그 파생 현상들에 대해 다층적인 포착을 하고자 하지만 학문적 토착주의나 일국주의와 같은 국가단위 사고의 완고한 패턴이 그러한 ‘이동하는 知’의 연구과정을 막아선다(백원담 앞의 논문, 139쪽)

20)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0, 38쪽

학자 H. 하르투니언은 지역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역학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견지한다. 그는 냉전시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지역연구가 탈식민주의 담론과 비판적 문화연구와 접목되면서 일으킨 질적 변화는 이제 ‘현재’와 ‘차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지역학이 토착지식과 내부자의 시선에 포착되는 현재의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접촉한 근대성/외부와의 관계로 인해 일으키게 된 변형을 놓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일상성, 일상생활이라는 범주를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일상/일상생활은 새로운 현재와 과거를 매개하면서 동질화를 요구하는 근대화를 중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공간은 특정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되, 더 넓은 시공간적 맥락에 연결되어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관계와 가능성을 포함한 채 놓여 있다.²¹⁾

그동안 사회과학의 보편적인 방법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학 연구방법을 비판하면서 구모룡은 지역학에서 문화론적 전회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한다.²²⁾ 지역학과 문화연구(Culture Study)가 만나는 시점은 1990년대 이후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특수한 가치에 관심이 커지는 한편, 1990년대 새로운 학문 경향으로 부상한 문화연구가 지역학을 포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문화연구 초기 계급에 초점을 두던 전통에서 정체성과 젠더, 인종과 민족성과 국적, 문화적 실천과 문화적 실천을 형성해내는 권력관계, 역사학과 지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간과 공간 관련으로 논의를 하는 문화연구가 지역학과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울러 이들 학문이 가지는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은 이들의 상호연관성을 증대하면서 문화론적 지역학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백원담은 식민주의적, 냉전적 기원을 가진 강한 타자에 의한 지역학을 전향적으로 극복하고 성찰적 ‘자기지’(self-knowledge)를 구축하고 새로운 지역인식의 틀을 만들어 내는 ‘지역문화정치학’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역연구의 문화적 전치는 국민국가라는

21)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111-135쪽 참조

22) 구모룡, 「부산: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 『인천학연구』 2008, 3-5쪽 참조

일국적 관점이나 단위에 과열지점을 설치하고 지역이 무단히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변체로 파악하게 한다.²³⁾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정치학은 사회적 관계와 제도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 의미와 구조를 둘러싼 투쟁의 영역으로 문화를 규정하는데, 다시말해 문화정치의 관점을 수용한다. 이러한 관점의 수용은, 로컬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권력-관계망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전망은 로컬리티의 인문학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로컬리티의 개념적 정초를 마련하는 데 개입하였다.

3. 로컬리티 인문학의 연구지형

인문학은 현행적인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virtual) 것이다. 이 때문에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로컬리티에 대한 단순한 정치경제적,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비판이나 대안들만이 아니라, 그 대안들이 오늘날의 위험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문적 가치를 수반하도록 요청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향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성찰과 비판을 수행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잠재성과 현행성의 역학을 주목하는 인문학은, 지속적으로 삶의 가치와 인간다움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묻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화의 유연한 도구로 부상한 로컬리티를 목도하면서, 소비욕망과 인간 존재론적 가치 사이의 괴리와 균열에 대해 객관적이고 근본적으로 물음을 던질 인문학적 개입의 당위성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므로 로컬리티 연구는 세계 안에서 자기 해방-공동체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가치의 준거점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로컬-로컬리티가 실질적인 역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²⁵⁾ 과제를 내장하면서 출발했다.

23) 백원담, 앞의 논문, 143-146쪽 참조

24) 이무용은 공간의 문화정치를 공간의 생성, 변천, 소멸의 과정을 공간-주체-권력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하고,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 상징적, 문화적 권력관계와 갈등, 경합의 다양한 과정과 그 지리적 맥락을 탐구하는 비판지리학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14쪽)

25) 박영균, 앞의 논문, 372-373쪽

3-1. 탈근대담론을 경유한 로컬리티 연구

근대의 시간 중심적 세계관은 근대/전근대, 문명/야만 등으로 전제되는 편향적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수립된 교육, 미디어체계, 제도정치 등을 통해 개인들을 개발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로 동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때 오른쪽의 항에 배치된 로컬 역시 계몽의 대상으로 위치하면서 중심화의 기제를 강화하는데 호출되었다. 국민국가의 공간적 위계에서 벗어나는 공간적 전략으로 로컬리티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더욱 확장된 글로벌(국가)-로컬의 이분법적 공간 위계 안으로 포획될 수 있는 지점은 농후하다. 로컬리티 연구는 바로, 로컬이 배치되어 왔던 자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기획되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화로 인한 로컬의 부상은 오히려 배타적인 로컬리즘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도처에 편재되어 있다. 특히 규모나 층위의 스케일에서 접근할 경우 글로벌-국가-로컬의 갈대기 형에서 로컬리티의 위치는 맨 하위에 배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여전히 중심/주변의 구도를 내재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때 로컬리티를 기층적 물질성에 근거한 주변부의 특징적 성향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로컬리티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오류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기왕의 중심/주변의 표상체계에 의존하여 설명해낼 수밖에 없는 중심/주변담론이 갖는 한계 안에서 주변부의 반복적 환기는 결국 기존의 표상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에 공모하게 된다.²⁶⁾ 위계적인 구도가 갖는 위험성은 중심-야/ 주변-선, 중심-근대, 주변-탈근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때 로컬은 이미 구체성과 복잡성을 상실하고 추상화되고 고착된 한 방향만을 지정한다. 로컬리티에 내재한 주변의 위계적 구도 자체가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구

26) 하나의 내러티브가 구조될 때 항상 어떤 것은 지워지고 생략된다는 마서레이의 논지를 참조. 작품의 담론은 결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끝이 없고, 완성되어 있으나 끝없이 다시 시작하며, 산만하면서 동시에 응축되어 있고, 그것이 감추지도 드러내지도 못할 어떤 부채하는 중심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과 해체된 중심, 그 의미의 다양성에 텍스트의 필연성이 토대하고 있다.(Pierre Macherey,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tr. Geoffrey Wall(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p.3) 마서레이가 강조하는 텍스트의 지점은 로컬리티를 읽어내는 데 유효하다

도 안에서는 여전히 근대화담론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맥락이 생략된 채 로컬리티와 주변성 그 자체가 곧바로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가치와 동일시되는 것 역시 중심/주변의 구도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중심에 대한 모방담론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부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 지역성이나 내부의 '비난의 수사학'으로 가득찬 오독(誤讀)의 로컬리즘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²⁷⁾

그러므로 로컬리티와 주변성이 로컬 주체들에 의해 중심의 논리를 비판하기 위한 가치로 구성되기 이전에 '항상-이미(always already)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로컬리티 연구가 결국 중심/주변의 위계를 추인하고 고정시키는 데 기여하거나, 물론, 반대급부에서 예상되는 중심/주변의 역전을 통해 로컬리티의 낭만화를 지향하자는 것은, 당초 근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서 비롯한 로컬리티의 문제들을 희미하게 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적 틀을 해체하고 다른 경로들을 제시함으로써 로컬리티의 다양한 형상과 다층성을 드러냄으로써 로컬리티의 잠재성이나 역동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로컬을 주변화시켜왔던 근대의 기획으로부터 '탈근대'와 '탈중심'이라는 시각에서 '로컬 주도(local initiative)'의 전환을 기획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로컬 주도라는 말이 로컬을 둘러싼 외부 권력들을 삭제한 채 추상화되거나, 중심/주변이 역전되었다거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잡하고 혼종적인 공간으로서의 지금 여기의 공간을 주목하고, 이러한 점이 하나의 '홈페인 공간(espace strie)'으로 수렴되지 않는 탈주의 선을 잠재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래서 기존의 로컬리티 연구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치중하여 로컬의 정치경제적 변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면, 로컬리티인문학에서는 소수성과 타자성, 주변성, 차이와 차별, 선망과 질시,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등 다양한 인문학적 지점에서 로컬리티를 접근하였다.²⁸⁾

이러한 인식적 토대는 탈중심성, 다원성의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탈중심성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에서 주어진다. 몸을 지닌 존

27)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문제원a, 「한국문학과 로컬리즘: 고향의 발견과 서울, 지방의 (탈)구축」, 『한국문예비평연구』 38, 2012, 57-60쪽 참조

28) 김용철·안영진, 앞의 논문, 427쪽

재로서 인간은 자기중심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목적 조건과 한계, 그 매개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자신의 존재와 중심성에 자리할 수밖에 없으면서 관계적 존재로서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중심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중성을 의미한다.²⁹⁾ 신승환은 이러한 이중성을 탈근대성의 중요한 원리로 기능한다는 데 주목하면서, 여기에 로컬리티의 위치성을 세우고 있다. 그는 중심성과 탈중심성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지금-여기의 로컬리티를 강조하며, 이러한 로컬리티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인문학의 중요한 터전임을 강조한다.³⁰⁾

그것은(다원적 중심성) 또한 우리의 현재, 인문학의 조건인 ‘지금 여기’의 현재성을 성찰하는 가운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탈근대적 중심성은 다원적 실체들이 자신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중심이 되는 다원적 중심성이며 다원적 탈중심성을 의미한다. 다원적 실체들의 중심성은 그 실체가 자리한 현재, 그 실체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며 그 현재가 중심이 되는 원리에 자리하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인식들은 근대적 지식체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로컬 지형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다원적 실체들의 연결망으로 리즘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탈중심성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로컬리티의 형상에 다가가는 방법론적 사유들이 될 수 있다. 이에 로컬리티 연구는 중심과 주변 구도에 대한 추인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심의 구상이 시도되고 좌절되었던 흔적을 더듬는 작업³²⁾으로도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로컬리티는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망에 의해 구축되거나 부정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그러

29) 신승환,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인문학』 창간호, 2009, 175쪽

30) 위의 논문, 176-177쪽

31) 위의 논문, 177쪽

32)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한반도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사례로」, 『민족문화사연구』 47, 2011, 22쪽): 정주아는 ‘로컬은 당대의 중심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결여의 발견에서 탄생하고 그 결여를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주장하면서 ‘움직이는 중심’으로서의 로컬리티를 제안한다.

므로 여기와 저기, 나와 너, 이때와 그때 등등의 관계와 배치에 의해 구성되는 로컬리티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이 확보되어야 한다.

3-2. 공간 경계의 재해석과 다중스케일

로컬리티인문학의 연구대상은 일차적으로 “물리적·사회적 공간단위로서 지역 또는 지방으로 불리는 국가 하부의 국지적 단위”에서 출발하였지만³³⁾ 사회적 관계의 공간적 수준으로서 스케일의 전략, 주체, 변화 등을 고찰하면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경계 지점에 대한 사유가 요청되었다. 공간의 경계를 중앙/지방, 인식의 경계를 주체/타자의 이분법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크기, 층위, 권력관계의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면들을 놓치게 되고 로컬리티의 범주를 협소하게 할 수 있었다. 로컬 단위나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원성이 발현되는 곳’에서부터 다양한 ‘정치적 문맥들이 수행되는 갈등과 협상의 장’이라는 의미론적 해석과 몸, 가정, 공동체, 마을, 도시, 국가-지방, 지역, 글로벌-로컬 등의 다양한 규모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규모들을 선택할 때, 유의할 것은 특정한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이한 규모 상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및 세력들 간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때 공간물신론(spatial fetishism)을 경계할 수 있다.

지역연구의 전통이 축적되지 않은 기반 위에서 로컬리티인문학의 출발 지점을 기존의 지역학의 데이터베이스나 연구방법론을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된 특정 지역규모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역정체성을 구명해 나가는 작업은 굳이 지역, 지방이 아닌, 로컬을

3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자료집 참조;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의 일국적 프레임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의 지역학이 이미 구획된 행정지번의 규모나, 글로벌-추상적, 로컬-구체적 이라는 이분법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박배균은 최근의 지방학 연구들이 한국, 지역, 지방 등과 같은 연구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국가의 주권적, 행정적 영역에 의해 주어진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영역화의 함정과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박배균, 앞의 논문, 41쪽)

설정하고 로컬리티 연구를 하겠다는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로컬리티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지리학의 경계를 넘어 로컬, 로컬리티를 새로운 공간단위로 규정하는 준거들을 마련하는 작업은 당연한 과제였다.

이때 장소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던, 지리학에서 제안하는 ‘실재의 스케일(real scale)’과 ‘상상의 스케일(ideal scale)’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유용하다. 스케일은 일차적으로 지도상의 축적을 의미하지만, 사회-공간적 차원에서 스케일이라는 용어는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과 사건이 펼쳐지고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스케일은 지리적 영역의 상대적인 크기(size)와 수준(level)뿐만 아니라, 계층화된 관계 속에 자리하는 특정한 층위를 가리키기도 한다.³⁴⁾

이러한 스케일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보면, 그 속에서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기를 공간적으로 표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스케일을 구축하고, 이러한 공간적 표상은 유동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축한 스케일에 맞추어 가시화된다.³⁵⁾ 그러므로 스케일은 단편적이고 정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축되는 유동적인 산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로컬리티 연구는 고정적이고 정체적인 특정 공간과 장소를 다루는 연구가 아니라, 그 내부에 모순과 갈등이 상존하는 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혼선이다. 스케일에 대해 지리학에서는 존재론적 범주(주어진 것이거나 수동적으로 발견되는 대상)와 인식론적 범주(사회적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구성)로 접근하면서, 대립적인 논점을 세워왔다.³⁶⁾ 그러나 최근 ‘실재의 스케일’과 ‘상상의 스케일’을 분리,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포괄적 관점을 제안한다. 실재의 스케일은 사회공간적 실천

34) 구동회, 앞의 논문, 512쪽

35) 김순배, 「지명의 스케일 정치: 지역영역의 스케일 상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2010, 16쪽

36) 황진태·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대한지리학회지』 50-1, 2015, 124쪽

이 일어나는 무대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쉽사리 바뀌지 않는 스케일을 지칭한다. 예컨대, 도시, 국가, 지구 등은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해서 각기 별개의 스케일로 자리 잡은 후 그 형태나 위상이 역사적으로 변모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상상의 스케일은 사회공간적 현실을 파악하는 인식틀로서의 스케일이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스케일을 통해 현실에 대한 선별, 누락, 단순화, 분류 등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점에서 스케일은 사회공간적 현실에 대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담론으로 기능한다. 이들 행위자는 각자의 스케일을 구성하고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 상이한 스케일을 가진 행위자들과 담론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³⁷⁾

그러므로 로컬리티 연구에서 실제의 스케일과 상상의 스케일을 포괄적 관점으로 수용하면서도, 특히 인문학적 전환이라는 프레임으로 상상의 스케일에 적극적으로 기댄다. 그래서 “로컬리티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과정을 둘러싸고 언표주체와 언표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담론적 고안물”³⁸⁾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로컬의 장소성, 역사성, 주변성, 소수성 등의 담론적 프레임이 덧씌워지면서 로컬리티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향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당초 “로컬리티는 특정 로컬이 나타내는 장소성, 역사성, 권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과 관계성의 총체이며, 여기에 추상적인 인간의 인식을 경계지우는 주변성, 소수성을 포함한 확대된 개념”(로컬리티의 인문학 아젠다)에 근거하며, 이후 “로컬은 국가가 만들어낸 상상의 정체성이 아닌, 현실의 장소에 기반한 실지정체성과 국가성에 의해 억압받던 주변성, 소수성, 다양성의 가치를 품고 있다³⁹⁾ 등의 논리로 이어졌다.

37) 구동희, 앞의 논문, 512-515쪽 참조

38) 문제원b,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2008;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자칫 실제의 스케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로컬과 글로벌을 어떤 존재론적 대상이나 실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공간적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국면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면서 로컬과 글로벌이라는 담론의 상호구성을 포착한다.(박경환, 「글로벌, 로컬, 스케일-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인문학』 5호, 2011, 55-63쪽 참조)

39)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로컬리티가 발휘되는 실질적 장으로서의 로컬(local)은 다중적이고 이질적인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상호 교류하는 공간인 동시에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외부로 설명되고 외부의 개입에 노출된 공간이다. 국가나 세계는 로컬이라는 공간에 규범화, 추상화된 기표들을 이식하거나(되거나) 기입하려 하지만, 한편으로 ‘위로부터 실행되는’ ‘텅 빈’ 규범성에 직접적인 의문을 가할 수 있는 지점(spot)이다. 이러한 길항이 일어나는 현장인 로컬에서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은 저항이나 주체화의 양상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다중정체성을 보인다.⁴⁰⁾ 이는 하나의 기표로 드러나는 추상화된 로컬이 아니라, 다양하고 구체적 실천들이 부딪치는 로컬을 상징하게 한다. 그러므로 로컬은 안팎으로 여러 층위, 지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복잡한 층위에서 경합하고 작동함으로써 구성되는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의 로컬은 국가나 자본에 의해 구획되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다중스케일(multi-scale)’의 네트워크⁴¹⁾에 의해 재조정되고 있다.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특정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에 비해 선형적으로 우세한 것이 아니라, 기왕의 위계관계를 가로지르며 작동함을 주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은 폼페이되어 왔던 로컬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자본 주도의 관점을 교정하고 로컬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로컬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맺는 양상에 주목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⁴²⁾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 자체에 의존하는 국지적 장소의 관점을 넘어서고, 국가-자본 주도로 억압적인 공간을 구현해 온 근대적 공간관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다중스케일을 인용하며 다양한 위치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관계적 접근은, 안이 밖이 되고,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흐려지며, 주변에서 중심의 전복을 상상하며 하나의 평면에서 반듯하게 구획되는 것이 아

32, 2008, 24쪽

40) 조명기, 「로컬 주도적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가능성: 윤리와 문화를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2, 2014, 68쪽

41)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네트워크적 연결은 특정의 장소와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탈영역화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국지화되면서 영역화 또는 재영역화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박배균, 앞의 논문, 42-47쪽)

42) 조명기, 앞의 논문, 71쪽

년, 주름 잡히고 역설적인 정체성들 간의 협상을 통해 주체가 구성됨을 주장하는 로컬리티의 생성적(becoming) 측면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⁴³⁾

3-3. 인문정신의 사회화와 로컬리티 연구

전지구적 자본의 힘에서 벗어나는 길은 로컬-로컬리티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거리두기'를 하며, 이를 다시 객관화해서 성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국가 경계의 약화'나 '차이의 로컬리티'가 전지구적 자본의 욕망을 추동하는 첨병이 되기도 하는 일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작업은 다시 연구의 출발점인 지금 여기의 현장과의 환류를 통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에드워드 사이드는 인문주의적 실천이 인간정신을 탐구하는 '인문주의의 전통'에서 있으면서도 세속성(worldliness)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작업은 비단, 인문학 연구의 차원이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부재에서 촉발된 '인문학의 위기'⁴⁵⁾에 대한 대안적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의 인문학은 한편으로 과학주의에 위축되거나 아니면 다른 편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메타적 담론과 지식의 생산에 전념한 나머지, 변화된 인간의 정신세계와 아울러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둘러싸고 일

43) 황진태·정현주, 앞의 논문, 133쪽; 이와 유사한 방법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행위자-연결망 이론이다. 이는 로컬리티의 관계성,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관계적 존재론에 근거하여 사회의 다양한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고, 구조적 차이를 없애려는 행위자-연결망 이론은 다른 행위자들과 차별적인 위계적 기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마저도 연결망 속 여러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세상은 평평하다'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안적인 관계모형을 추구하는 전략의 잠재성을 타진하는 데서 의미화되고 있다.

44)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2008, 94쪽

45) 1996년 11월 인문학 교수들이 제주에 모여 인문학 제주선언을 통해 인문학 위기를 선언하였다. 2001년 인문학자들은 위기선언을 통해 인문학 연구 교육기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2006년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 위기 극복을 위한 인문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와 대응으로 탄생한 제도가 인문학한국(Humanities Korea)이다.

어니는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들에 둔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인문학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지금 여기’의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 공감하지 못하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인문학 연구자들이 주도한 담론이 현실의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담론을 위한 담론에 그치기도 하였고.... 인문학 연구의 비현실성, 비소통성, 비실용성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문학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 공간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⁴⁶⁾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실적 조건을 보는 관성화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들을 대안적으로 구상하고 모색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담보로 할 때, 설득력이 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소수자, 주변인, 타자-을 지역 삶의 주체로 재인식하고 그들에게 인문학을 돌려주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의 끈이 인문학의 대중화, 대중인문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는 언제나 피드백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학 밖에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붐이다. 도처에서 인문학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소통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지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논의가 제기된다. “인문학 대중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정적 모습은 시민들 각자의 삶의 터전과 긴밀하게 연관된 프로그램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자기 삶의 현장에 대한 몰이해 속에 이루어지는 인문학 강좌가 많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의 지역적인 삶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는 탓에 인문학 듣기가 장식성에 빠지고 추상화되어 삶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⁴⁷⁾는 것이다.

4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 자료집(2007), 5쪽

47) 박연규, 「장소와 경험, 그리고 동네 인문학」, 『시민인문학』 31, 2016, 150쪽; 최근 제도인문학의 대응개념으로서 바탕을 둔 실천인문학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문도시 프레임은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지면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아젠다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로컬리티인문학 연구단은 부산독립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연구 결과에 바탕한 영화제작에 들어갔다. 로컬리티 연구의 큰 틀 안에서 ‘다문화 공생과 로컬리티’라는 중주체에 집중하면서 국경을 넘는 글로벌 이주를 주목하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공간이 어떻게 공생의 공간으로 회복해 가는가를 연구의 주요한 테마로 상정했고,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었다.⁴⁸⁾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대중적 소통과 확산을 위하여 영화 <다른 밤 다른 목소리>(최용석 감독, 2014)를 제작, 상영하였다.⁴⁹⁾ 지역의 장소성을 주목하여 수행한 연구 과정에서 학술적 공간을 넘어 현장에 들어가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피드백하여 지역에서 상영한 과정은 현장과 아카데미의 긍정적 환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다른 밤 다른 목소리>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같은 시공간이지만 ‘다른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안의 이방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영화는 바다, 배, 터널, 선착장 등 부산의 공간성(해양성/유동성) 위에 부산의 오래된 타자 화교의 이야기를 올려놓고 있다. 이 작업은 무엇보다 이는 인문학과 영상공학, 아카데미와 현장, 대학과 산업체가 만나 만들어진 공동작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영화는 산업과 테크놀로지와 의식/무의식이라는 범주가 교차하면서 이미지와 서사의 복합체를 조직해내는, 예술 형식인

아니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천의 구체적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의,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시민인문학』 28, 2015, 99-102쪽 참조

48) 관련 연구로 박규택, 「전이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 부산광역시 상해거리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3, 문재원 엮음,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소명, 2013; 이명수 외, 『다문화와 인정의 로컬리티』, 소명, 2015 참조

49) 영화는 화교 3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부산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화교의 시간에는 최근 동남아 이주민의 이야기까지 겹쳐 놓고 우리 안의 이방인, 이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또한 이주를 표상하는 차이나타운, 부산항, 영도(국내 이주까지 포함한 제주해녀) 등을 주 영화공간으로 차용하고 있다. 영화 제작 기간 동안 영화 제작팀과 공동 워크숍 3회를 진행하였고, 총 제작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였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 섹션에 초청 상영되었다. 상세한 작업과정이나 영화 텍스트에 관한 내용은 문재원c, 「인문학과 대중화, 아카데미와 현장의 소통: 로컬리티의 인문학과 영화의 만남」, BIFF Conference 자료집, 2015, 374-383쪽 참조

동시에 대중문화 매체이며, 독자적인 언어구조를 가진 사회 담론의 장(場)이다. 특히 영화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로컬리티의 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했을 때 영화라는 매체를 주목한 것은 이러한 효과의 측면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와 영상언어의 상호보충을 통해 ‘지금 여기’의 인문학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전달하고자 했다.

최근 강단인문학, 대안인문학, 시민인문학, 희망인문학, 대중인문학.... 요즘처럼 인문학에 대한 수사(rhetoric)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대학 안에서는 종래 고전적인 인문학이 유심론에 바탕한 자기수양이나 의지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인문주의’를 강요했다면, 최근에는 산업의 새로운 역군으로서 ‘실용주의’를 강요하면서 경쟁의 논리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대학 밖에서 넘쳐나는 대중인문학이 ‘대중들을 향한 적당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인문학의 지형은 융성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곤혹스러움은 인문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에서 쉽게 자본 가능한 상품으로 번역하는 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며, 이 지점을 경계하는 일이다.

4. 나가면서

본 논문에서는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지형을 방법론적 사유, 대상, 지향점 등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로컬을 주변화시켜왔던 근대의 기획으로부터 ‘탈근대’와 ‘탈중심’이라는 시각에서 ‘로컬 주도(local initiative)’의 전환을 기획하였음을 주목했다. 이러한 기획 아래 로컬의 정치경제적 변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로컬리티 연구와 달리, 로컬리티의 인문학에서는 소수성과 타자성, 주변성, 차이와 차별, 선망과 질시,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등 다양한 인문학적 지점에서 로컬리티를 접근하였다. 둘째, 로컬은 안팎으로 여러 층위, 지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복잡한 층위에

서 경합하고 작동함으로써 구성되는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으로 파악하고,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근대적 공간경계를 해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셋째, 지금 여기의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 공감하지 못하는 인문학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현장과의 환류를 제안하며 실천(praxis)의 인문학 논의에 참여했다.

로컬리티는 제도와 관습과 아비투스⁵⁰와 이데올로기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로컬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가치와 자율성을 옹호하는 로컬리티가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되고 고착화된 규범과 클리셰 속에 가두어둘 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로컬리티의 인문학에서 집중하고 있는 로컬의 가치는 지역 연구자의 이데올로기나 취향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동안의 왜곡과 억압의 구조 속에 놓여 있었던 로컬리티의 복권을 위한 지향점이 다분히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말해, 로컬리티 연구가 글로벌화라는 환경에서 지역의 상품화에 편승하거나 단순 저항하는 로컬리즘뿐만 아니라 학문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유행에 따라서 로컬리티를 본질적으로 가치화하려는 엘리트적 시선 또한 경계⁵¹할 것을 주문한다.

로컬리티가 무엇이다. 혹은 로컬리티의 자명성(당위성)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그 자체로 로컬리티 연구의 거점을 묻는 자기성찰의 출발점인 동시에 로컬리티인문학의 현재적 좌표와 비전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 현재적 좌표와 비전이 중요한 것은 로컬리티 연구를 통해 이미 죽어버린 과거 전통의 잔해를 뒤져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거나 그 의미를 역사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로컬리티의 인문학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오히려 과거의 잔해들에 개입해 지금-여기의 로컬리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컬리티의 인문학은 당위적인 윤리성 안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와 좌표에 대한 성찰을 구성적 전제로 포함하여 ‘도래할 것 같지 않은’ 미래에 대한 발칙한 도모를 언제나 꾀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50) 배윤기, 「경계, 근대적 공간, 그리고 그 너머: 로컬리티 연구에서 로컬리티-기반의 이해와 관련하여」, 『인문과학연구』 34, 2012, 441쪽

도모에 대해서도 사회적 결정론을 내세우며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열어둔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우리 앞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로컬, 로컬리티라는 질료의 자명성을 의심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좌표에 대한 성찰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실천적 개입을 수반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새로운 지식 생산의 질료가 아닌 이미 주어진 고정된 실체로서 자명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동원되는 하나의 경험주의적 자료로만 기능할 뿐이다. 주체와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로컬리티가 지금 여기의 나와 다시 어떻게 환류하는가 라는 물음은 고통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다. 이 물음은 자기반영(성찰)을 내재하고 있는 비평적, 실천적 물음이면서, 결국 로컬리티 인문학의 좌표와 가능성에 대한 심문의 자리⁵¹⁾이기도 하다.

51) 자기반성, 현재적 좌표에 의해 구성되는 (인)문학의 논리에 대해서는 김영찬, 「문학연구의 우울」, 『현대문학의 연구』 57, 2015, 136-141쪽 참조

참고문헌

- 구동희,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국토지리학회지』 44-4, 2010
- 구모룡, 「부산: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 『인천학연구』 2008
- 김대래, 「부산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부산학총서』 1, 신라대 부산학 연구센터, 2003
- 김순배, 「지명의 스케일 정치: 지역영역의 스케일 상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2010,
- 김용철·안영진,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2014
- 김영찬, 「문학연구의 우울」, 『현대문학의 연구』 57, 2015
- 김창수, 「인천학연구방법론 서설」, 『인천학연구』 창간호, 2002
- 문재원a, 「한국문학과 로컬리즘: 고향의 발견과 서울, 지방의 (탈)구축」, 『한국문예비평연구』 38, 2012
- 문재원b,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2008
- 문재원c, 「인문학과 대중화, 아카데미와 현장의 소통: 로컬리티의 인문학과 영화의 만남」, BIFF Conference 자료집, 2015
- 문재원 엮음, 『이주의 로컬리티의 재구성』, 소명, 2013
- 박규택, 「전이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 부산광역시 상해거리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3
- 박경환, 「글로벌, 로컬, 스케일-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로컬리티 인문학』 5호, 2011
-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 2012
- 박연규, 「장소와 경험, 그리고 동네 인문학」, 『시민인문학』 31, 2016
- 박영균, 「로컬리티와 인문학의 만남」, 『대동철학』 53, 2010
- 배운기, 「경계, 근대적 공간, 그리고 그 너머: 로컬리티 연구에서 로컬리티-기반의 이해와 관련하여」, 『인문과학연구』 34, 2012,

- 백원담, 「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정치학적 전환 문제」, 『중국현대문학』 55, 2010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I), 2007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지역학과 로컬리티 연구」(좌담회), 『로컬리티인문학』 2, 2009
- 신승환,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인문학』 창간호, 2009
- 오영교, 「원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릉학보』 창간호, 2004
- 유승희, 「서울학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한계」, 『도시인문학연구』 2-2, 2010
-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 이명수 외, 『다문화와 인정의 로컬리티』, 소명, 2015
- 이영의, 「인문도시의 구조와 내용」, 『시민인문학』 28, 2015
-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한반도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사례로」, 『민족문화사연구』 47, 2011
- 조명기, 「로컬 주도적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가능성: 윤리와 문화를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2, 2014,
-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사회와 역사』 104, 2014
-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0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 황진태·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대한지리학회지』 50-1, 2015
- A. Dirlik, "The Global in the Local", R. Wilson & W. Dissanayake(eds.), Global/Local: Culture Production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ry, Durham: Duke Uni. press, 1996
-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 Pierre Macherey,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n tr. Geoffrey Wall(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엮김,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야노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

에드워드 사이드, 김정하 역,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마티, 2008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체국주의』, 한울, 2005

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

호미 바바, 『디세미-네이션: 시간, 내러티브 그리고 근대국가의 가장자리』, 호미 바바 편, 류승구 역, 『국민과 서사』, 후마니타스, 2011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 서정은 역,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Abstract

Locality and Humanities

- Critical Access to Encounter Between Regions and Humanities

Mun, Jae Won(Pusan Univ.)

Locality and humanities appearing as a new form, from the bargaining process between locality(study) and humanities attempt to critically accommodate and generalize the existing regional studies and develop them into a meta theory, and then establish its own research areas by achieving performance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ones. This paper initially considers the flow of regional studies around some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It also examines the study topography of locality and humanities, from three aspects: 1)conceptual appropriation of locality via postmodern discourse 2) reinterpretation of spatial boundaries and multi-scale 3) Socialization of Humanities. This research topology first confirms how locality discourse is emerging in the flow of postmodernism, how concept of locality can be appropriated in humanities, and provides a new space-locality imagination beyond violence in modern time and space.

■ Key words : Locality and Humanities, regional studies, cultural turn, multi-scales, de-centrity, socialization of humanities

접수일자: 2016. 11. 10 심사일자: 2016. 12. 20 게재결정: 2016. 12. 21

